

새 언약

말씀 : 누가복음 22:1-23

요절 : 누가복음 22: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구약은 ‘옛 구원의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구원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의 방법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과 주권적으로 맺은 약정 곧 약속’을 말합니다. 이 언약은 결코 변개하거나 깨뜨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최후만찬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최후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셔야 할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이 무엇이며, 또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I. 가롯 유다의 배반(1-6)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1)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로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바로의 권세 아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유대 월력의 첫 달(1월, 정월)이 되는 곧 니산(아빕)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먹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넘어가다’는 뜻인 ‘유월절’(逾越節, Passover)이라고 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중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매우 완악하였습니다. 한두 가지 재앙으로는 전혀 굴복하지 않으므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고 마침내 열 번째인 장자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를 영접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애굽 지경의 모든 장자를 멸하는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도록(Passover) 구원을 베풀어주셨습니다. 반면 이에 불순종한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의 장자를 비롯하여 모든 애굽의 초태생(初胎生)들이 다 멸절 당하였습니다. 이 참혹한 재앙 앞에서 마침내 바로는 항복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유월절로 정하셔서 노예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받은 은혜를 매년 지키고 기념하도록 명하셨습니다.(출12:14)

하나님은 또 무교절(無酵節)을 제정하시고 유월절 당일 밤부터 일주일 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無酵餅, matzo)을 먹도록 명하셨습니다. 1월 14일은 여호와와 유월절이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

안은 무교절로서 이 기간은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신 이유는 악독한 죄의 누룩이 가득했던 애굽의 노예생활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전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위대한 소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출19:5,6) 이처럼 유서가 깊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여러 명절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12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 축제에 참가하였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상기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새 힘과 소망을 덧입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궁리(窮理)를 하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2)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연구하였습니다.

이 때 사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열두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 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매”(3,4)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출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칼빈(John Calvin)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매일 같이 우리를 범죄 하도록 유도하고 커다란 죄악의 길로 재촉한다. 그러나 그는 유기된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빼앗으며, 이성의 빛을 어둡게 하며, 부끄러운 모든 느낌을 파괴하는 것이다.” 유다는 자기 발로 원수의 소굴에 찾아가서 존경하고 사랑하던 스승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길 방도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했습니다. 그들의 언약은 지옥의 언약이었습니다. 유다는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 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면 인간으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끔찍한 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무서운 타락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이브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 후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벧전5:8) 하지만 사탄이 아무에게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유다의 생각과 삶을 기록함으로써 사탄이 들어갈 문을 열어놓은 유다에게 책임이 있음을 암시(暗示)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 제자모임의 선교사업부장(재정부장)을 맡을 만큼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돈에 대한 탐심과 물질주의 누룩을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값비싼 향유 옥합을 쏟아 부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리아를 오히려 비난하였습니다. 돈궂을 맡았는데 거기 있는 것을 도적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요12:4-6)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불의의 값으로 받을 사기도 하였습니다.(행1:18) 천사도 흠모하는 사도의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속적인 삶을 선택하였습니다.(행1:25)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지도자들의 시기와 유다의 배반 더구나 사탄의 음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민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즉 속죄 제물이 되도록 체포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가롯 유다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죄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정죄하고 죽였으며, 유다는 돈을 받고 의인을 악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후에 분명

히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음모를 가지고 인류 구원을 위한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갈 틈을 주지 못하도록 권면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사탄은 과거에 빛나는 업적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예외로 봐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허점이 있는 자는 누구나 시험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휘둘리지 않으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가을학기 우리의 마음을 기도와 주님의 말씀으로 힘써 지켜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캠퍼스 양들을 깨어 섬세하게 보살 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7-23)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지라**”(7) 유월절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식은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가족과 함께 먹으며 유월절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은밀하게 성내로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 열 세 명이 함께 지낼 숙박 시설과 음식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8)고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10-12) 이 장면은 무슨 첩보영화 보듯 비밀리에 무슨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친히 주도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진두지휘(陣頭指揮) 하셔서 준비하게 도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묻자, 성내로 들어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집 주인에게 말하면 그가 자리를 준비해둔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은밀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장소를 정해놓으면, 가롯 유다가 그 장소를 대제사장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큰 방해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장소를 정하시고, 유월절 식사 직전에 제자들을 그 곳에 보내어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13)

때가 되자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 사도들과 함께 앉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15) 여기서 '고난 받기 전'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기 전을 의미합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가를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통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새 유월절을 제정하고자 하셨기 때문

입니다. 이 유월절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과거 유월절’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그 죽은 어린 양의 효력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어야 할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월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곧 복음역사를 계승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이 유월절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노예생활 하던 이스라엘에게 육신의 자유를 주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바로의 세력에서 건지는 구원의 표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모든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영원한 구속의 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이 유월절을 통해 이루실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그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일까요? 이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유월절에 수없이 죽었던 양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1:29)고 증언했습니다. 유월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예표적인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음식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미리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이 지상에서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16) 이 말씀은 지금까지 짐승의 피로 드리던 유월절 의식은 끝이 나고 완전한 새 유월절이 제정될 것을 뜻합니다. 드디어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순서는 정결의식을 행한 후 가장(家長)이 행사 시작을 선포하고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 포도주 첫잔을 마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애굽에서의 고난을 생각하며 쓴 나물을 먹습니다. 다음에 식순에 따라 장자가 아버지에게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 물으면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출애굽기 13:14절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나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새” 말씀을 근거로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줍니다. 다음으로 소찬송시(The Hallel)의 첫 부분인 시편 113,114편을 노래하고 손을 씻은 다음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런 다음 유월절 행사의 절정에 해당하는 무교병과 함께 양고기를 떼어 나누어 먹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양고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던 날 밤에 조상들에게 기념하라고 명하신 사실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기념하면서 먹습니다.(출12:14) 각자 원하는 만큼 식사를 한 다음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런 다음 대찬송시의 마지막 부분인 시편 115-118편을 노래하고 네 번째 잔을 마시면 모든 행사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순에 따라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17,18)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유월절이 성취될 것과 이 땅에서 드리는 의식적 유월절의 종료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최후의 유월절 식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새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19)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무교전병, 즉 누룩 없는 떡을 부스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조각씩 떼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무교절에 먹는 떡은 빵인데, 곧 ‘아르톤, 마초트’는 누룩이 포함되지 않는 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몸줄 죄인도 다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귀한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유월절 떡은 누룩 없는 순결한 양식입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의 죄 값을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51절에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 가치와 효력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썩고 부패하여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로서 온 떡은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쿵이 있으면 그 떡은 쿵떡입니다. 그 안에 호박이 있으면 그 떡은 호박떡입니다. 보리가 있으면 보리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또한 세상의 떡은 죄의 누룩이 가득하여 먹는 자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으로 주시는 순전한 생명의 떡은 우리를 순결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누룩 없는 영생의 떡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받아 순결한 양식을 먹을 때 죽은 생명이 살아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양식을 잘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또 힘을 얻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 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어린아이가 젖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듯이 영의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이 영력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다. 이런 사람은 심령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죄의 유혹이나 꾀박도 능히 극복하고 죄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으니 죄의식과 두려움을 벗고 자유하게 될 것이며,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감사가 많아 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 권세나 성공을 떡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받고 이루어도 만족이 없고 더 갈급해지고 온갖 갈등과 불만과 어두운 세력으로 점점 피폐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심신이 피곤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된 때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을 때입니다. 이 떡이 생명을 줄 것입니다.

둘째, 새 언약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줍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여 붓는 것이라.”(20) 예수님은 잔에도 포도주를 부어서 일일이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poured out for you” 예수님의 피는 제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붓는 것이었습니다.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 하여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야 할 때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위한 제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들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죄를 제물이 된 짐승에게 옮기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직접 칼로 그 제물을 찢어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제사장이 금 그릇에 받은 후에 제단 아래에 부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범죄 하여 죽어야 할 죄인 대신에 제물의 생명이 대신 바쳐졌음을 선언하고, 그 죄인에게는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사를 배경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게 될 피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의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합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레17:14) 피로 세우는 언약은 목숨을 걸고 세운 언약,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A new covenant)을 제정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구 언약 또는 옛 언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며 응답했습니다(출24:7).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언약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조건적인 언약이요, 쌍방 간에 책임이 있는 쌍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짐승의 피로 인치셨습니다(출24:8).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구 언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예레미야 31:31-3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만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언약이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요지는 하나님의 법을 돌 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효력은 죄 사함입니다. 마태복음 26: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귀한 몸을 찢기시고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순결합니다.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근본적으로 죄를 없이 하며 사람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9:13,14). 레위기 17: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속해야 했습니다.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히9:22).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하는 것은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온전하지 못하여 죄를 범할 때마다 번거롭게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는 장차 올 참된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독소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하고도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속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새 언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을 맺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개(變改)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겹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후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찬송가 544장)”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자신의 피를 쏟아서 부어 주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능히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찬송가 252장). 예수님의 보혈에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믿는 순간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흉악한 강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는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이처럼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기초로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늘 묵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주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19b)고 하셨습니다. ‘기념한다’(아남네신, remembrance)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회상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정신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

높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념하라고 하실까요? 이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은혜는 강물에 새겨 흘러보내고 한두 가지 섭섭한 점은 가슴에 새겨 복수하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념하고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과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축복과 영생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Saint Augustine)은 교회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듣는 말씀인데, 이것은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 설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봄으로써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펔전이 한번은 자기 서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왜 울고 있어요.” 스펔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글썄 내 마음이 얼마나 침체되었는지 내가 십자가를 봐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일회적(一回的)인 사건이지만 그 효력(效力)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념해야 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사실을 기념하며 은혜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다 마음이 힘들면 십자가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십자가를 벗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결되기는커녕 죄가 사로잡힙니다. 이는 날마다 이를 기념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기도와 양식을 먹으며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로써 내 인생이 새로운 감사와 도전과 전진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의 켈리 교수님은 신앙이 깊고 또 매우 인격적이어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있었는데 외출할 때 늘 옷에 장미꽃을 꽂고 다녔습니다. 켈리 교수님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교수님을 흉내 내어 옷에 장미꽃을 꽂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학생들이 꽂고 다니는 장미는 하루가 못 가서 시들었는데 켈리 교수님의 장미는 며칠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학생들이 교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자기의 옷깃을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옷깃 뒤에 조그마한 물병이 있었고, 장미 줄기는 그 물병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아름다운 장미같이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행하신 후 가롯 유다를 회개시키고자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21)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몹시 고통스럽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유다가 당할 화를 인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죄를 깨우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22)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

은 유다의 배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승을 파는 유다의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우쳐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려 하는지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으므로 유다의 배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23) 예수님은 새 유월절의 완성을 위한 죽음의 길에서도 자기를 배반하는 유다 한 사람을 끝까지 도우시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새 언약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영적인 생활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세지말(末世之末)에 퇴색해가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새 언약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